

I. 통상현안정보

■ 무르익는 서남아 지역협력

- 2006 년 SATFA 발족 앞두고 협상활발

- 내년 1 월 9 일로 예정된 제 13 차 남아시아 지역연합(SAARC, South Asia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정상회의에서는 남아시아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협상의 마무리가 예상됨에 따라, 1985 년에 설립되어 지난 20 년간 운영된 남아시아 지역협력체가 보다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세계적인 지역협력체 결성과 FTA 체결에 따라 서남아시아 지역에도 인도-파키스탄간의 지역 분쟁이 평화와 경제발전으로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역내 지역 협력과 공동발전에 대한 협상들이 분주하게 일어나고 있음.
- 방글라데시는 인도와의 경협확대를 위해 지역 협력의 틀 속에서 양자간 숙원으로 남아있던 동북의 도로건설, 정보통신협력, 그리고 주요 분쟁과 이슈들에 대해 많은 제안과 협력을 모색하고 있음. 또한 인도는 이란으로부터의 가스를 공급받는데 있어 파키스탄을 통해 들여오려고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파키스탄과 정쟁을 중지하고 평화적인 협상과 경제발전을 위한 협상에 진력하는 등 남아시아 전역에 경제발전을 위한 화해 협력시대가 도래하고 있음.
- 다카에서 개최되는 제 13 차 SAARC 정상회담에서는 상호 세관행정지원, 투자진흥 및 보호, SAARC 중재사무소 설치, 이중과세 방지협정 등 지난 11 월 이슬라마바드 상무장관 회담을 통해 이미 합의를 본 사항들에 대한 서명식을 있을 예정임.
-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향후 10 년간 남아시아 지역의 주요 이슈가 될 빈곤구제, 환경, 미디어 및 정보통신과 바이오기술 분야의 협력 등이 논의될 예정으로 있어 지역협력체의 미래발전방향도 함께 제시될 것으로 보임.
- 한편 2006 년 1 월부터 발효되는 SAFTA(남아시아 자유무역지대, South Asia Free Trade Agreement)를 앞두고 방글라데시는 주요 수입제품에 대한 양허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고 수입규제대상 품목수도 1398 개에서 1306 개로 축소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민감품목에 대해 정부와 업계의 입장이 조금씩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또한 표준 및 시험분야의 통일화(Regional Mutual Recognition in Standards, Testing Facilities and Conformity assessment), 위생검역, 방글라데시 주력수출품목에 대한 관세적용기준 변경 등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제거를 위해서도 노력중에 있음.
- 방글라데시는 시멘트, 농축우유, 전기용품, 미네랄워터, 배터리 등의 對인도 수출시 인도의 ①표준규격 제도로 인해, 황마제품과 유제품, ②가금류의 경우 식품 및 검역안전성에 요구로 인해, ③의류제품의 경우 인도정부의 관세를 변경으로 인하여 각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이들 분야에 대한 인도 정부의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음.

- SAARC 는 인도를 중심으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네팔, 부탄, 몰디브 등 7 개 이사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교역비중이 아세안 24%, NAFTA 46%, EU62% 등으로 역외비중이 높은 반면 역내비중은 4%에 불과해 매우 낮은 편임. 이는 GDP, 인구, 교역 등의 분야에서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도의 경우 수입의 1%, 수출의 6%만이 역내 비중일 정도로 역내 교역량이 작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방글라데시의 경우 총 수출의 4%만이 역내비중인 반면 수입의 37%가 역내비중으로 역내 교역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SAFTA 를 통해 역내수출을 확대코자 하고 있으며, 역내 수출시 무관세일 경우 외국인투자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그 동안 SAFTA 논의방식이 Negative 방식의 상품별로 시장을 개방하는 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대부분의 참가국들이 개방을 꺼려하는 부분에 대한 품목들이 개방되지 않아 역내교역이 크게 증가하지 못하였음.
- 방글라데시는 다카에서 개최되는 제 13 차 SAARC 정상회담을 위해 준비위, 의전과 행정, 숙박, 안전, 교통, 문화 도시미화, 정보 및 홍보, 통신, 보건 등 10 개의 위원회를 운영중인데, 1993 년에 다카에서 정상회담 개최이후 두 번째로 다카에서 개최되는 SAARC 정상회담에는 약 220 명의 공무원과 기자단 3-400 명을 접견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음.

(문의처 : 다카무역관 권경무 kyoungmoo@kotra.or.kr)